무안군, 드론활용 벼 직파재배 신기술 보급 확대

농업인 등 60여명 참석 시연회 개최…드론 30대 지원

기계이앙比 ha당 120만원 절감 · 작업시간도 1/6로

무안군은 지난 5월 29일 일로읍 망월리에서 농업관련 관계자를 비롯한 농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활용 벼 직파재배 확대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는 일반적인 벼농사에 필요한 모판에서 모를 기르는 육묘 과정이 없고 경운과 정지작업을 한 뒤에 볍씨를 논에 바로 뿌려서 모를 기르는 것으로 초기 제초제를 주는 과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직파재배는 잡초성 벼 방제 어려움과 기계 이앙에 대한 관리가 복잡하고 수확 시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재배 확대가 부진하였지만 드론으로 직파재배를 할 경우에 기계이앙 대비 생산비가 ha당 최고 120만원이 절감되고 작업시간도 1/6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군은 비료 주기, 병해충방제 등 주요 농작업에 드론을 활용하여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작업 생력화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 30대를 지원했다.

이번 연시회에 참석한 농가는 "농업용 드론을 통한 벼 직파과정을 실제로 보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감될 것 같다"라며 "경영비 감소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에서 노동력 절감은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한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드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약 38억 지급

신안군은 관내 1만 2천여 가구에 38억원 상당의 1004섬 신안 상품권을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지급했다.

전남형 생활비는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안군이 60%, 전라남도가 40%의 예산을 부담해 시행됐다.

군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지역적 특성상 고령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14개 읍·면 사무소에서 마을별로 담당공무원과 이장이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방문 신청 및 상품권 지급'을 실시하였다.

5월29일 기준 신청 대비 신안군의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률은 99.4%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평균 지급 결정률이 88.8%임을 감안 할 때 비교적 빠른 지급 결정이 이루졌다. 이는 군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사 및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본청의 주민복지과와 교육복지과 직원 40여명을 접수 및 조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착안하여 추진한 결과이다.

압해읍 김모씨(78세, 여)는 "코로나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살기도 어렵고 경로당도 폐쇄되어 답답증이 나서 혼났었다"며 "긴급생활비 상품권을 받아 오랜만에 읍내에 나와 쌀도 사고 고기도 살 수 있어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박우량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전남형 긴급생활비지원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탈락가구들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많은 군민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형 생활비지원은 지난 5월 29일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신청가구는 17,311세대로 이중 약 68%(11,703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당초 지원대상 계획(8,064세대)의 약 145%에 달하는 가구수이다.

군은 현재 신청 건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및 재산조회 회신이 필요한 101세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주 이내 모든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 창문 밖 연주

이종호 음악감독 포함 10명, 베란다 연주회 감상 기회 제공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군민들을 위해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난 5월26일과 28일 삼향읍 남악리 근화베아채 비올레와 무안읍 광명아파트 단지에서 '찾아가는 창문 밖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문 밖 연주회는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 이종호 음악감독을 포함한 10명의 음악강사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연주회를 감상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야외에서 열렸다.

연주회는 오후 6시부터 1시간여 동안 대중들의 귀에 익숙한 베사메무초 등 13곡으로 진행하여 입주민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한 아파트 주민은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에 제약이 있다보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우울감이 갈수록 높아졌는데 음악으로 많은 위로가 됐다"라며 뜨거운 호응으로 화답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대표 육성 작목 '사과대추' 전문가 초청 재배 · 기술 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6월 1일 관내 사과대추 작목반 회원 및 관심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대추 재배 ·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재배 기술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실시하는 사과대추 전문 특화 교육으로 한반도농원 최덕현 대표를 초청해 사과대추 재배에 꼭 필요한 새순 제거 및 병해충 방제 등에 대한 이론 및 현장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대추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대추나무 전정 · 수형 만들기 등 기술 전수와 함께 직접 전정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고품질 명품 사과대추 재배에 꼭 필요한 농가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작목반 회원들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다양한 시도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사과대추 교육도 2년째 집중해서 받게 되니 이제는 사과대추 재배에 자신감이 생긴다"며 "이를 활용하여 우수한 사과대추 생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대추 열매는 일반 대추의 3배 이상 크기로 풍수해 등에 피해 우려가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서 제외됐다.

영광사과대추 작목반에서는 그동안 관련 기관을 통하여 수 차례 보험 가입을 건의한 결과 이러한 불굴의 노력이 관철되어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영광사과대추(대능)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자연재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영광=서희권 기자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18일 목포에서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와 목포시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이다.

목포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지역주민들도 누구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림, 농업,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등 국민권익위 주관 분야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상담한다.

상담 내용 중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과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된다.

이동신문고 상담 신청은 당일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지만 심도 있는 상담준비를 위해 사전 예약접수가 필요하다. 상담예약 신청서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열린행정→공지사항 4,861번)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